



제07호 / '18.6.8(금)

지부교섭 속보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상병휴직 기간 보장!
기본급 146,746원 인상!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김정태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전화:043-236-5077 ■http://dc.kmmu.kr

사측, 빈손으로 교섭나와

부담없는 요구안인데도 아예 제시안 없어

당당히 빈손으로 나온 사측

7일(목) 보취에서 열린 8차 지부교섭이 허무하게 끝났다. 사측이 너무 당당히 빈손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주 1차 제시안이 상대를 무시하는 무성의한 내용이었는데, 이번 주는 아예 빈손이었다. 김정태 지부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표현을 수차례 반복해야만 했다.

구체적으로 제시안 제출해야

올해 지부 요구안은 3가지이다. 그 중 임금요구안과 금속노조 전체 통일 요구안인 노사공동위를 빼면 지부 자체 요구안은 딱 한가지다. 개인 상병휴직을 치료기간까지 인정하자는 내용 하나다. 올해만큼 사용자 입장에서 부담없는 교섭이 없다. 그런데도 사측은 계속 시간만 끌고 있다. 지부가 이미 교섭 초기에 사측이 요구안을 수용하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밝혔는데도, 사측은 여전히 시간만 끌고 있다.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노사공동위는 강제성이 있는 합의기구가 아니라 협의기구이다. 참여를 결정하고 그 안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데

도 사측은 여전히 핑계만 대고 있다. 사측이 전향적으로 검토하면 얼마든지 쉽게 결론날 수 있는 요구안이다.

개인 상병휴직에 대해서는 사측이 우려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내야 논의할 수 있다. 사측은 그동안 질의응답을 통해 휴직기간이 무기한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 휴직기간을 포함하는 퇴직금 문제 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렇다면 그런 우려사항을 고민해서 제시안을 내면 된다. 그래야 지부도 논의하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 주부터 임금교섭 시작

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임금교섭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부도 다음 주부터는 임금교섭을 시작한다. 이번 주 빈손이었던 사측이 임금안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진전된 제시안을 제출할지 지켜볼 것이다.

차기 교섭은 6월 14일(목) 15시 한온시스템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사공동위 우려사항은 들어와서 논의하면 된다

노 : 오늘 기사를 보니 최저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다. 이런 내용을 과연 노동부가 몰랐을까 싶다. 노동부가 알면서도 최저임금법이 그렇게 되도록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업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 법이 바뀌어도 최소한 기존의 노동자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보다 낮아져서 연장근로수당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각 지회에서 설계를 잘하면 좋겠다.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27일을 일괄조정 날짜로 정했다. 임금교섭은 다음주부터 할 것이다. 다음주 임금 제시안을 낼 수 있으면 제출받겠다. 저번 제시안이 상당히 미흡했는데 오늘 제시안 있으면 받겠다.

사 : 여러 주변 상황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정확한 대책이나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도 아니다.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야 할 것 같다. 첫 제시안이 잘 안됐지만, 이전처럼 같이 머리 맞대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얘기하자.

노 : 혹시 오늘 제시안 있나?

사 : 오늘 안을 내려고 최종 조율했는데 조합에서 기대하는 것 보다 상당히 못하다. 좀 더 진전된 안을 내기 위해서 오늘은 안 준비를 못했다.

노 : 이해를 못하겠다. 노사공동위 구성 요구안 빼면 요구안이 하나다. 아픈 사람이 치료하다 퇴사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임금은 각 지회별 단협에 따르도록 양보해서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다. 사용자도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임금 요구도 없이 치료기간만 휴직을 보장

하라고 요구한 건데 그걸 못받는 걸 어떻게 이해하나? 노사공동위도 합의기구가 아닌 협의기구라 부담스럽지 않도록 하고 있다. 협의 통해 금속 산별 노사가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설정하자는 것이다. 오히려 사용자가 반겨야 할 취지가 아닌가? 그걸로 시간 끄는게 이해가 안된다. 전향적인 검토 요청한다.

사 : 자동차 업종이 아닌 다른 사업장이 자동차 산업 위주의 임금체제로 논의될 것을 우려한다. 일단 한 번 들어가면 우리 회사랑 맞지 않는 내용인데도 나갈 수 없지 않을까 염려한다. 우리 회사랑 다른 방향으로 임금체제가 가면 어떡하나 고민이 있다.

노 : 자동차 부품사가 아닌 곳도 거기에 맞게 논의해 나갈 거다. 들어와서 얘기해도 되는 문제다. 노사 공동위 대화 속에서 해보자.

독일은 금속사업장 안의 이동이 가능하다. 임금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업종이 다른 사업장 문제도 일방적으로 임금체제 만들면 못따라간다. 그런 내용은 사업장, 지부, 중앙 논의하는 과정 거치면서 조정해나갈 수 있다. 자동차 업종만이 아니라 일반 제조업도 소외되지 않게 만들겠다.

휴직기간 인정에 대해서는 무기한 연장이나 퇴직금 우려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포함해서 안을 내달라. 그래야 우리도 논의가 가능하다.

지부가 올해 지역적으로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지역의제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의 부담을 사회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며 산별노조답게 가려고 한다. 사업주도 협조할 건 협조하자.

임금 교섭도 일찍 풀렸으니 다음주에 논의하자.